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1

남김 없는 깨달음을 얻은이여…

[원문]
사향사과조원성(四向四果早圓成)
삼명육통실구족(三明六通悉具足)
밀승아불정녕촉(密承我佛丁寧囑)
주세항위진복전(住世恒爲眞福田)
–수종사 응진전

[번역]
사향과 사과를 일찌기 원만히 이루시고
삼명과 육신통을 모두 갖추셨네
은밀하게 우리 부처님의 고구정녕하신 부촉을 받으시어
세상에 머무르시며 항상 참된 복전이 되시네.

[선해(禪解)]

얼마 전, 내가 거처 하고 있는 봉국사 공양 간에 노숙자 몇이 밥을 얻어 먹으로 온 적이 있었다. 공양주 보살은 때 마침 대중과 신도들이 공양 중이라 그들에게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오라고 했다. 노숙자들은 대낮인데도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거리면서 공양주의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댔다. 자신들을 일반 신도들과 차별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나는 이를 지켜보다가 공양주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했다. 국과 밥을 손에 쥔 그들은 이내 조용해졌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가슴이 못내 아려왔다.

절에서 공양주를 하는 보살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날마다 끼니때가 되면 찾아오는 노숙자에게 한 그릇의 국과 밥을 퍼주는 일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수많은 대중과 신도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더구나 공양 시간을 맞추어 음식을 지어야 하는 공양주의 소임은 절에서 가장 고달픈 직책이라 할 수 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지어 먹여 주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사람이 깨달음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공덕이 없는 사람이 도를 깨치려면 마장(魔障)에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마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먼저 공양주를 자처하는 스님들도 있다. 함께 지내는 도반들의 밥을 퍼주다가 보면 그 공덕으로 인해 도(道)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큰 절이 아니고는 공양주를 자처하는 스님들을 보기가 힘들어 공양주를 주로 신도나 보살들이 대신한다.

그런데 사찰의 공양주가 때 아닌 노숙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더구나 도심에 가까운 사찰일수록 끼니때가 되면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 노숙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빨리 사회 속으로 되돌아 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구석진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귀와 눈을 닫아 놓고 탁상공론만 펼치는 그들에게 노숙자들이 먹는 따뜻한 한 그릇의 밥과 국의 의미를 이야기 한다면 어불성설이 될까? 그들의 행정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사찰에 있는 공양주의 힘든 마음도 들어 주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오늘의 사찰 주련 여행은 운길산 수종사의 응진전이다. 이곳 주련 속에 담긴 오백 아라한님의 이야기는 바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는 공양주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수종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운길산 꼭대기에 구름처럼 앉아 있는 사찰로서 신라 시대 때 세워진 절이다. 고려를 세운 왕건이 상서로운 기운을 쫓다가 이곳에 이르러 동종(銅鐘)을 얻어 마침내 고려를 건국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세종의 여섯 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정의옹주의 부도를 세운 사찰이기도 하다.

수행 완성해 번뇌와 윤회 벗어난 아라한 경지
남 위해 헌신하는 보시의 공덕 있어야 도달

다산 정약용은 "수종사는 신라 때 지은 고찰인데 절에는 샘이 있어 돌 틈으로 물이 흘러나와 땅에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낸다. 그래서 수종사라고 불렀다"고 <수종사기>에서 밝히고 있다. 당시 다성(茶聖)으로 추앙받은 초의 선사는 양주에 낙향해 있었던 다산을 찾아가 수종사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고 한다. '보성들녘에서 자란 차로 수종에서 향을 내다'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또, 세조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강원도 오대산에 갔다가 남한강을 따라 환궁하는 도중, 용진강 이수두(지금의 양수리)에서 밤을 맞아 야경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때 운길산 쪽에서 문득 종소리가 들려 그 연유를 신하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원래, 천년고찰이 있었던 자리로 암굴(暗窟)에는 18나한이 앉아 있고, 바위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조는 절을 다시 짓고 수종사라 이름 지었던 것이다. 이밖에 수종사에는 오층석탑이 있다. 이 탑은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팔각다층석탑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조선초기의 석탑으로 안정된 균형미를 자랑한다. 특히 이 탑은 한강을 통한 문화전파의 경로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팔각형의 평면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석의 각 모서리에는 원형의 우주가 있고 각 면에는 사다리꼴의 액이 조성되어 있으며 옥개석의 하단에는 매 층 각형 3단의 받침이 있다. 정상에는 삼각형의 문양이 시문된 복발과 보주가 있다.

그럼 응진전의 주련속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사향사과조원성 삼명육통실구족: 사향과 사과를 원만히 이루시고 삼명과 육신통을 모두 갖추셨네.'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 아라한을 찬양하는 게송이다. 성문사과(聲聞四果)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말하는데 수행자가 도달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아라한과이다. 수행을 완수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다시 생사의 세계로 윤회하지 않는 자리로서 소승 불교의 궁극에 이른 진리에 대한 의심 따위를 버리고 성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성문(聲聞)의 첫 번째 지위가 바로 아라한인데 사향(四向), 사과(四果), 삼명(三明)을 남김 없이 구족한 분이다.

사향이란 소승불교에서 수도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 품계를 말하는데 수행의 기초단계인 견도향(見道向), 불교의 근본진리를 명료하게 지켜보는 눈을 얻는 단계인 정류향(頂流向), 육계의 모든 미혹함을 끊는 단계 일래향(一來向), 육계의 9품 수품 가운데 7품을 끊었지만 아직 1품이 남아 있는 단계를 말한다.

삼명이란 부처님과 아라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천이통(귀로 못 듣는 것을 들음), 타심통(타인의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신통), 신족통(경계를 변신하여 출몰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신통), 숙명통(과거 세상의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하는 신통), 천안통(육안으로 못 보는 것을 보는 신통), 누진통(자유자재하게 번뇌를 끊는 신통)중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말하는데 과거의 업상과 인연을 알아 내세의 상을 명확히 하며 현재의 상을 깨달아 일체의 번뇌를 끊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을 원만히 구족한 이가 바로 아라한들이라는 말이다.

'밀승아불정녕촉 주세항위진복전: 은밀하게 부처님의 고구정녕하신 부촉을 받아 세상에 머물러 항상 참된 복전이 되시네.'

이러한 오백 아라한들에게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도록 아무도 몰래 간절하게 입이 쓰도록 정녕촉(丁寧囑:신신당부)하셨던 것이다.

그 덕택으로 오늘날에도 오백 아라한님들은 우리 주변에서 중생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바로 공양주이며, 절 마당을 쓸고 있는 저 사미승인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1

본심은 나고 죽음이 없다

[원문]

問曰 心旣見在 何故不見 師云 汝曾作夢否 答曰 曾作夢 問曰 汝作夢之時 是汝本身否 答曰 是本身 又問曰 汝言語施爲運動 以汝 別 不別 答曰 不別 師云 旣若不別 卽此身 是汝本法身 卽此法身 是汝本心 此心 從無始廣大劫來 與如今不別 未曾有生死 不生不滅 不增不惑 不垢不淨 不好不惡 不來不去 亦無是非 亦無男女相 亦無僧俗老少 無聖無凡 亦無佛亦無衆生.

"본심이 앞에 있다면 어찌하여 보지 못합니까?"하니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느냐?"하셨다.

"예, 있습니다"하니 "꿈을 꿀 때의 그대는 본래의 몸이더냐?" 고 물으셨다.

"예, 본래의 몸이었습니다"하니 다시 물으시기를, "그대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였을텐데 그대와 다르던가, 다르지 않던가?" 하셨다.

"다르지 않았습니다."하니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다르지 않았다면, 그 몸이 곧 그대의 본래 법신이며 그 법신이 그대의 본심이니라. 그 마음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과 조금도 다른 적이 없으며, 생사가 없어서 태어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으며, 더럽거나 깨끗한 적이 없으며, 좋거나 나쁜 적이 없으며, 가거나 온 적이 없으며, 옳거나 그른 적이 없으며,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도 아니며, 스님이나 속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의 모습도 아니며,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송(宋)나라 때 달마상(작자 미상).

[해설]

본심(本心)이란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고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 했을 때는 내가 혼자 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 했을 때는 우주 그대로의 한마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어리석어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 하고 계신 겁니다.

본심은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달마 스님께서 설명을 해도 모르니 "본심이 앞에 있다면 어찌하여 보지를 못합니까?"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달마 스님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꿈을 꿀 때의 그대는 본래의 몸이더냐?"

"예, 본래의 몸이었습니다."

마음의 도리를 모르니 꿈 속에서 보았던 것을 자기 몸으로 생각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본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본래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였을텐데 그대와 다르던가, 다르지 않던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았다면, 그 몸이 곧 그대의 본래 법신이며 그 법신이 그대의 본심이니라."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경계에 끄달려 작용하다 꿈에서 깨고 나면 허망함을 느끼지만, 그 또한 본래 마음이더라 이렇게 일러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과 조금도 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항상 그 자리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칠십이 됐을 때도 그 마음은 본래 그 자리예요.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인연 따라 변하는 몸뚱아리만 생각합니다.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태양을 받으면 수증기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슬이 되고 비가 되고 인연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만 물의 성질은 그대로이듯이 본래 마음자리는 물질이 아니니 변할 수 없습니다.

"생사가 없어서 태어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으며, 더럽거나 깨끗한 적이 없으며, 좋거나 나쁜 적이 없으며, 가거나 온 적이 없으며, 옳거나 그른 적이 없으며,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도 아니며, 스님이나 속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의 모습도 아니며,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짜 나는 태어나고 죽는 것도 아닌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유언 하시겠습니까?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고, 생도 죽음도 없고, 성인도 아니고, 부처도 중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이고 생사가 없는 것이니, 나라고 생각했던 육신은 진정 내가 아니므로 기증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막상 어디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무시(無始)이래 집착해온 것들을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놓을 수 있으면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못 놓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불교 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연수안내

불기 2553년 탄트라레크리에이션 문화협회에서는 21세기 FUN 레크리에이션 2급 불교전문지도자 과정 연수회를 개강 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불교에 접목시켜 대중들이 밝고 활기차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갈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09. 7. 4(토) ~ 8. 29 (토)
2. 교육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오후 6시까지
3. 교육장소 : 대전광역시 여진 불교미술관內 전수회관 1층
4. 교육내용 : 불교기초교리 및 예절, 레크리에이션개론 및 지도자론, 手氣法, 교육마술, 음악줄넘기, 찬불댄스 및 율동,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 댄스, 21세기형 리더십, 실내 · 외 게임, 불교학교 프로그램, 공동체 인간관계훈련, 이미지메이킹, 스피치, 오리엔티어링, 캠핑의 실제, 프로그램 작성법 및 모임진행법, 수예공예(비즈공예,종이접기), 노래율동 등
5. 특 전 : 이번 연수기수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특전을 시범 운영합니다. 단) 검정응시료는 별도입니다.
   ☞ 타 단체 자격증 소지자는 전환비와 재료비 및 검정료 포함하여 50%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선입금 하신분께는 10%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단체10인 이상은 10%이며 선입금시 5%로 추가 할인 혜택
   ☞ 군법당의 군종병은 단체 할인에 준한 혜택을 드립니다.
   ☞ 학인 스님 및 포교사분들도 단체요금에 준한 혜택을 받습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국민은행 402401-04-268689 예금주 : 이 연재

탄트라레크리에이션 문화협회
대표전화 : 서울, 경기도 : 032-349-6525 010-8829-8255
대전광역시 : 042-935-7889

대한불교선밀종에서
임원,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禪敎) 양종이거나 밀(密)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密)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지향하는 선밀종(禪密宗)을 창종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각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식품사업부 국제/국내 특허제품(숙취해소제, 마가목차) 보유
■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 및 사부대중
■ 복지사업부 자비실천모임(복지에 관심을 둔 자원봉사단 모집)

연 락 처
■ 총 무 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태남빌딩2~3F)
■ 전 화 053)311-2675~7 / FAX : 053)311-2634
■ 사업상담 053)311-2675~6 / 010-3134-8484
■ 입종상담 053)311-2677 / 010-3134-8484 (원묵)

비영리종교단체 등록번호 (37451-00292) / 비영리종교단체 고유번호 (513-82-65714)
大韓佛教禪密宗 總務院
http://www.sunmiljong.or.kr